

황우석, 조석환 두 교수가 우리에게 준 교훈

안마태

2005 년 연말의 대한민국 뉴스 미디어를 매일 도배질하게된 황우석 교수 사건은 우리 남부 조국의 동포들뿐 아니라 2 백 5 십여만의 미주 동포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다준 큰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될 지음에 나는 미국의 큰 명절 중의 하나인 추수 감사절이어서 딸네 식구들과 함께 미니 벤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관광 여행을 하는 중이었다. 손자를 제외하고는 우리 모두가 미국에서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여서 전공이 BT 분야는 아니지만 각자 자기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의견들을 내어 놓고 여행 중 열띤 토론을 전개하였다.

먼저, 변호사인 딸은 여자들의 난자 채취에 얽힌 법률 문제에 대한 내용을 주로 이야기 하였고, 사업가인 사위는 이 사건으로 생기게될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였다. 사회사업가인 우리집 사람은 여성들의 건강 문제와 여성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게되었다. 하지만 은퇴한 성직자인 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우리 한국인의 문제점들을 주로 이야기 하게되었다. 그리고 나는 난자 채취에 일어난 윤리적인 문제뿐 아니라 논문 자체가 모두 가짜라는 주장을 하였다. 모두 놀라며 나의 주장에 대해서 아무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어서 열띤 토론만 하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토론은 끝났다. 이들이 나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고 그래서 나는 돌아오는 길에 이것을 글로 써서 한국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글로 나의 주장을 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 후 지난 두달동안 내가 주장한 황교수에 대한 예측은 하나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꼭 맞아들었다

나는 점을 치거나 예언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난 몇해동안 내가 한국에서 당한 경험으로 인해서 황우석 교수가 거짓말을하고 그가 쓴 논문이 모두 가짜라고 직감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 2,000 년도 이후 나는 오랜 동안의 컴퓨터 입력 분야의 연구와 강의 때문에 한국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고 많은 대학의 연구실과 과학자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한국의 IT 분야의 연구와 개발 문제에 상당한 지식을 갖게되었다. 그리고 직접적인 사유는 나의 연구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온 조석환 교수(현재 산업 자원부의 산업 표준국 자판 전문 위원회 위원장)라는 사람이 있었기에 황우석 교수가 사이버 과학자라는 견고한 확신을 갖게되었다. 이분의 행동이 황우석 교수의 행동과 꼭 닮았기 때문에 미리 황교수의 논문이 가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첫째로 이 두 교수분이 다 거짓말을 잘하고 변명을 그럴듯하게 잘하는 선수들이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들이 거짓말을 하리라고는 좀처럼 믿지 않으려 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옛부터 다른 나라에서 볼 수없는 독특한 선비 사상이 있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대학 교수라면 모두 청렴 결백하며 정직을 생명과도 바꾸는 사람들로 착각해왔기 때문이다. 단종애사에 나오는 사육신들의 이야기에서처럼 장직함과 목숨을 바꾼 사람들은 성삼문, 신숙주와 같은 한글 창제에 큰 공헌을 한 집현전 학자들인 존경받던 선비들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전통은 남아 있어서 이런 학자들이 차마 거짓말을 하리라고는 아무도 믿으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짓 말을하고도 거짓말이 탄로되면 얼굴하나 붉히지 아니하고 잘 둘러대며 변명만 한다.

황교수가 거짓 말과 변명을 얼마나 잘했는지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졌다으므로 여기에 되풀이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조석환 교수가 얼마나 거짓말과 변명을 잘했는지를 되세겨 보고져 한다.

2003년 4월 9일에 카이스트는 내가 1977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25년동안 100여회 이상의 미국, 중국, 그리고 이북에서의 실험을 통해서 완성된 3벌식 한글 자판을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언론 발표회를 과학기술부 청사에서 가졌다. 이 발표회를 가진지 얼마 안있어서 (그해 8월 20일) 산업 자원부 표준국의 자판 전문 위원회 회의록에 조석환 교수(평택 대학교 교수)라는 분이 나의 3벌식 자판과 공병우식 3벌식에 대한 비판 보고서를 실려 놓았다. 그래서 나는 즉시 이에 대한 항의서를 보냈고, 비판을 하게된 과학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요구했다.

그의 회답을 받아보고 나는 너무 큰 실망을 했고 하마트면 까무라칠뻔 했다. 그의 회신에 의하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남부 조국의 표준 자판은 훌륭한 과학자들이 만들었고, 많은 과학자들과 업계의 대표들이 모여서 컴퓨터의 표준으로 정했기에 오류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자음과 모음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글자를 찾아서 잘 출력하여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과학적인 데이터로 어떤 한 개인회사가 2벌식 자판으로 입력하는 테스트를 했는데 그 결과가 1분당 1,200타가 넘는다고 했다. 만약 이런 수치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기네스 북에 올라가야하고 노벨상을 받을수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 이유는 기네스 북에 오른 사람은 세계 최고가 1분당 750타이며 아직도 이 기록을 깬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거짓말뿐 만이 아니라 나에게 미국의 드보락 자판이 제 2의 표준으로 1982년에 제정된 후에 나온 최근 자료들이라며 10여개의 영어 자판에 대한 영문 자료들을 죽 나열해 보내왔다. 그리고 이 글을 한국의 어떤 웹에 올려놓아 많은 사람들이 읽게해두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보통사람들이 보면 아주 그럴듯하게 써 두었다. 그래서 그분은 훌륭한 과학자로 인정하겠금 믿게 해두었고, 나는 미국에 사는 한 무식한 늙은이가 할일이 없어서 정부가 만든 훌륭한 과학적인 자판에 대해서 트집 잡는 사람으로 되어버렸다.

아니나 다를까 카이스트가 마면해준 나의 웹 (<http://ai.kaist.ac.kr/ahnmatae>)에는 그후 상당히 많은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자비로 키보드를 만들어 무료로 보급을 실시했는데 배송비를 받고도 키보드를 보내주지 않는다고하며 사기꾼이라는 글도 서슴지 않고 올려놓았다. 그래서 카이스트는 나의 웹에 있는 자유토론장마저 모두 폐쇄해버렸다. 그래서 활발하던 3벌식 자판에 대한 남부 조국에서의 토론의 장이 완전히 단허버렸고 키보드의 보급도 중단되었다.

한동안 실의에 빠져 나를 남부 조국으로 불러드린 카이스트를 원망도 했으나 오히려 이런 기회가 나에게서 더욱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작년부터 새로히 미국에서 웹페이지 서버를 구축하여(www.ahnmatae.org) 영어와 중국어와 한글로 세계를 향해 안마태 소리글판과 한글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정식으로 미국과 중국에다 연구와 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의 연구 개발 기관은 “단동 안마태 계산기 개발 유한회사”로 명명되었고, 이미 2명의 직원을 고용하게 되어(한분은 중국에서난 교포 3세이고, 다른 한분은 중국인) 활발히 자판 보급과 중국어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있다. 금년 안으로 개발 완료될 “안마태 정음”(약자로 “안음”으로 명명됨)으로 알려진 이 중국어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개발 보급된 10여종의 중국어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쉽고 빠르게 중국어를 처리할수있는 획기적인 것이 될것이며 한글의 우수함을 세계에 알리게 될것이다. 모르긴 하지만 공산권인 중국과 이북에서 대한민국보다 앞서서 안마태 소리글판이 컴퓨터의 입력 표준이 될 것같다.

황우석 교수의 거짓된 논문이 대한민국에는 큰 국가적인 망신을 가져오고 손해를 끼친 것처럼 조석환 교수의 거짓 말과 변명도 대한민국에는 더 큰 망신과 더 큰 손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줄기세포 연구가 하루 아침에 되지 않는 것처럼 새로운 자판을 연구 개발하는 일도 절대로 하루아침에는 되지 않는다. 나의 경험으로는 25 년을 연구 개발을 해서 발표했어도 아직 완전한 자판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번 자판의 자리를 익히는 검증 실험을 하는데 까지만해도 자그마치 1 년 6 개월이 걸렸었다. 자판 입력은 인체의 자율신경이 개입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자판의 자리를 완전히 익혀서 오자가 없는 입력이 가능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980 년대의 미국에서의 실험으로는 자그마치 3,000 시간이 걸렸었다. 마치 오른손으로 글을 쓰던 사람에게 왼손으로 글을 쓰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자율신경의 훈련은 엄청난 시간이 요한다. 그러므로 열 번만 자리를 바꾸어서 실험을 한다고 해도 자그마치 15 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산업 자원부 표준국의 자판 전문 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석환 교수께서 2003 년에는 현재의 2 별식 표준 자판이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졌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새까만 거짓말을 하더니만 작년에는 언론을 통해서 현재의 2 별식 표준 자판이 잘못 되었으므로 새로운 표준 자판을 또 만들어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서야 그것이 잘못 되었음을 인정한다니 참 다행이긴 하지만 이분이야 말로 황우석 교수보다 더 웃기는 사람임엔 틀림이 없다. 황교수처럼 정부의 연구비를 끌어내기 위한 헛소리인것 같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야할 기초과학분야나 방위과학과 우주과학 등 민간 단체나 업체가 하지 않는 일에는 투자를 잘 안하고 정권연장이나 정권인기를 위해서 민간 단체나 민간 업체가 하는 연구에 뛰어드는 나라이기에 이렇게 날고 뛰지 않으면 연구비를 못타다 쓰기에 남을 짓밟아서라도 그리고 그렇게 양심을 속여가며 거짓 말을 해야하고 이것이 탄로나면 그럴듯하게 변명으로 일관할수 밖 에 없는 나라이기에 생겨나는 당연한 현상인것 같다.

그리고 조석환 교수는 남북의 통일을 대비한 자판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분이 남북의 학자들이 1996 년에 중국 연변에서 남북 합작 통일 자판을 만들었는데 이 자판이 이북의 것과 닮았다고 언론에 보도하여 허사가되게 했던분이다. 그 당시만해도 남과 북의 교류가 거의 없던 때라 남북의 학자들이 모여서 합의를하고 각자 검증 실험을해서 양국 정부에 표준으로 건의하여 표준으로 삼자고 합의를 했는데 검증 실험도 하기전에 허사로 만든 사람이다.

1996 년에 남북 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통일자판을 내가 분석해보니 1969 년에 박정희 정권이 서너달만에 만든 표준 자판보다 약 30%의 성능이 더 좋았다. 이북의 것은 1993 년에 상당히 한글의 사용빈도를 많이 조사하고 만든것이기에 성능이 남한것 보다 훨씬 좋았다. 그러므로 남북 학자들이 동의해서 만든것이 이북의 표준 자판과 가까운것이 당연한 이치였다. 그런데 이것을 이북것과 닮았다며 다된 음식에 코빠트리는 짓을 했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정신 나간 사람이었다.

그 때에 이것을 통일 자판으로 남과 북이 받아들였으면 지금 사용하는 표준 자판보다는 훨씬 좋았을 것이다. 이것을 돈으로 따져보자. 한국에 현재 보급된 컴퓨터의 숫자가 1 천만대로만 가정하고, 사용자의 수나 사용 시간을 이의 10 분의 1 만 잡고, 일인당 급료가 년 평균 18,000 불로만 가정하고 25%의 효율만 따져도, 1 년에 45 억불이 되기에, 이 자판을 받아드리지 않아서 생겨난 지난 10 년 동안에 450 억불을 손해를 보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한사람이 자판 전문가로 자처하고 반대를 해서 한 나라가 이처럼 엄청 난 손해를 보게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그뿐 아니라 이 숫자를 오늘 당장 남북 통일이 갑자기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남과 북이 각각 따로 사용하는 자판때문에 일어나는 혼돈과 이를 바로잡기위한 비용은 돈으로 계산이 불가능한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게 된다.

그러나 그 후 조용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분석해보니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남부 조국은 지난 수십년 사이에 서구 여러 나라에서 수백년이 걸려서 이룩한 민주주의와 산업 발전을 한꺼번에 이룩한 나라다. 너무 빠른 발전을 하다보니 기형적인 발전을 하게되었다. 그 중 특이한것이 종적인 민주주의 사회 구조이고 국가 중심이고 재벌 중심의 산업 발전이다.

참다운 민주주의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에서 출발하지만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횡적인 인간 관계보다는 종적인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연구실 안에서도 지도교수는 어느 군주 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로 군림한다. 그래서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비를 마음대로 쓰고 연구원은 최저 인건비도 받지못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구비를 타오는 사람은 존경받고 그렇지 못한사람은 밀려나고 만다. 연구비를 조달하는 정부는 정권 유지와 정권 인기를 위해서 앞에서 굽실거리는 어용 학자들이나, 날고 뛰는 재주가 있는 어용학자들에게나 돈방석에 앉게 한다. 그리고 짜고치기 고스톱 게임으로 연구비 따내면 나눠먹기에 급하다.

기업은 차떼기로 현금을 갖다 바치고 국가 권력 앞에서는 허리가 구버러지도록 겸손해진다. 왜냐하면 허리를 조금만 펴도 그 기업은 공중 분해를 시켜버리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목을 꼭 눌러버리기 때문이다. 국가가 산업발전의 핵심에 있어서 과학적인 연구 기금도 국가가 모두 관리한다. 세계에서 열번째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도 산업 발전 모델은 아직도 개발도상 국가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래서 모든 산업 표준도 국가가 만들고 국가가 관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민간 기업이나 이분야 종사자에게 내어주면 국가의 권위와 권력을 잃는것으로 착각해서 이를 내어 놓을생 각조차도 안한다.

산업 사회에 있어서의 표준이란 그 사회 구성원간의 일정한 협약에 지나지 않는다. 즉 물건의 제조업자 간에는 각자 다른 표준을 사용하면 생산 비용이 더 들어가고 소비자 편에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다. 예를 들어보자 지금 이동 통신 기기의 한글 입력 방법이 생산업자마다 각각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큰 희생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을 정하는것이 국가 권력 기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기업간에 협의를 해서 자판의 표준을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에서는 형식적으로 표준화를 위한 모임이다 뭐다 하면서 모아 보지만 정권과 결탁된 기업은 참여조차 하지 않는다.

내가 속해있는 Unicode Consortium 에 대한 이야기를 하므로써 한국에서의 모든 산업 표준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한다. 미국에서는 표준을 절대로 국가가 만들지도 않고 국가가 관리하지를 않는다. 미국의 모든 표준은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라는 민간 비영리 기관이 관리한다. 1918 년경 에 여러개의 제조 전문 엔지니어 협의체가 하나의 민간 기구를 만들어 산업 표준을 관리한다. 이 기구에는 미국의 연방 정부 기관이나 자치단체의 기구가 회원으로 들어와 있지만 전체 회원 회사나 단체나 연구소의 숫자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

미국의 문자 코드 표준도 이 기구가 관리를 하는데 컴퓨터 시대에 들어와서 키보드는 타자기 시대의 영어표준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기에 ANSI 코드라고 불리우는 1 바이트짜리 코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컴퓨터에서 영어뿐 아니라 여러가지의 외국어도 처리를 해야하므로 처음은 각 회사마다 각자 다른 코드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코드는 서로 호환성이 없어서 Unicode Consortium 이라는 새로운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이들 관련 회사가 회원사로 들어오고, 개인 전문가들도 회원으로 참석한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코드는 ANSI 와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에 등록되어 각각 미국의 표준이되고 세계의 표준이된다. 이 코드집은 현재 약 45 개의 세계 여러나라의 언어별 코드가 들어있는데 이 코드는 ISO 코드와 코드의 번호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같게되어있다. 현재는 2 바이트의 코드만

사용하지만 세계의 모든 문자(고어포함)가 늘어날 상태이기에 미래를 위해서 4 바이트로 확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두었다.

나는 코드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자 입력과 코드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개인 회원으로 7 년전에 가입해서 공부하며 자원봉사를 하고있다. 그런데 이 모임에 참석해서 아직 한번도 미국 정부 관리들이 참석하는것을 보지 못했다.

한국도 미국처럼 연구기금을 투명하게 여러 연구소에 통보해서 얼마만큼의 기금으로 어떤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며 문호를 열어주고 개인 기업이건 학교건 누구든지 훌륭한 연구를 할수있도록 문호를 개방 하여 기금을 골고루 나누어주어서 선의의 경쟁 을 하게해야지 한사람에게 집중하면 황우성 교수와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올것이다. 그리고 컴퓨터의 표준화도 기업이나 이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어 스스로 표준으르 정하도록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국가가 자판 전문 위원회라는것을 만들어서 이를 독점하는 한 조석환 교수와 같은 분이 계속 나올 것이다.

정부 독점의 연구기금 관리와 컴퓨터 자판 표준관리를 하는 한 한국은 소망이 없다. 그러나 나는 이번 사태를 매일 열심히 관찰을 하면서 이런 정부의 시책만 바꾼다면 훌륭한 발전을 하리라 의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번 황우석 비리를 용감하게 고발한 젊은 과학자들이 있는 것을 보았고, 내가 카이스트를 방문할 때마다 연구실에서 잠을 자며 연구하는 젊은 과학자들을 보았기 때문이다.